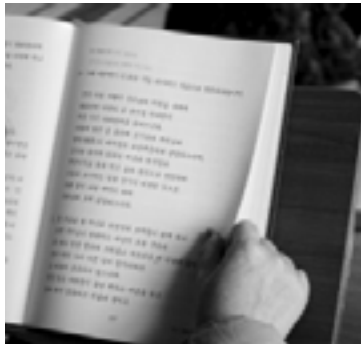


2020 WINTER

Vol.42

특집. 법화경천일기도 10주년

정토마을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CONTENTS

- 03 AFFILIATED | COOPERATION
- 04 여는 글
- 06 기획특집 법화경 천일기도, 10년을 돌아보며
10 법화경의 의미
- 12 법화경 강설 제10. 법사품 | 서봉 반산스님
- 18 스님들의 채공이야기 정토 공양간 이야기 | 태감
- 20 의학상식 인플루엔자 | 정은진
- 24 영적돌봄연구실 그 시절로 돌아가 자신에게 조언한다면? | 능인
- 26 봉사자 글 날마다 행하는 삶이기를 | 전해경
- 27 요양병동 이야기 나의 친절 | 김다운
- 28 천천히 읽는 명상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 김경일
- 30 마하보디교육원 가슴에서 열어가는 기도의 빛 | 지안
- 31 국경없는민들레 스리랑카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 이진희
- 32 나도 정토마을 민들레 현묵 송봉관
- 34 특별기부 공덕의 향
- 35 후원명단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

인류와 일체 생명의 평화적 공존에 나는 기여한다.

-정토마을 공동체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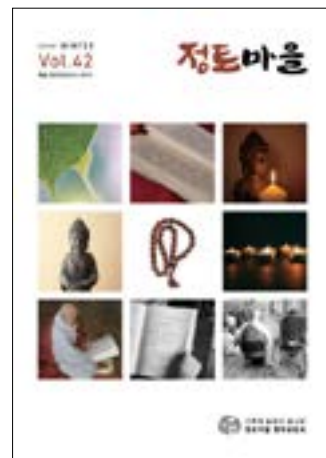


AFFILIATED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 완화의료 전문 병원, 중증환자 재활 병동, 승가요양 병동
 마 하 보 디 교 육 원 | 다양한 인성개발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의 장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고통을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심리치유의 장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 | 자각과 성장을 통한 마음돌봄 임상수행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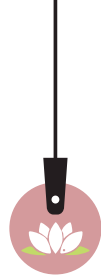
COOPERATION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NGO생명교육네트워크 공존
 한국CPE협회
 울산불교환경연대



정토마을 통권 42호

발 행 인 능행
 편집위원 장광대 김현아
 편집디자인 김유현
 발 행 일 2019년 12월 25일
 등 록 울주,라00007(2008.04.11)
 주 소 정토마을_울산 (052-255-858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정토마을_청주 (043-298-225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초정로 856-19
 제 작 (재)정토사관자재회 | 비매품
 www.jungtoh.org



여는 글

능행 |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이사장

一體唯心造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마음은 마음을 사용하는 자에 의해서 현상계에 창조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에가 고치 속에 갇히듯, 스스로 만든 업의 속박[我城] 속에 갇혀 삽니다.

2019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행복하셨는지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찾는 행복,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은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한 채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이란, 만족함을 느끼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얼마나 만족해하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세요.

고통과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다 느끼신다면 정토마을법화참회기도에 초대합니다. 다차원적인 것에 근심걱정, 염려로 초초하고 연연해하며 짜증내지 마시고, 영남알프스의 기운이 햇빛처럼 내리는 이곳에서 마음속에 누적된 업력을 소멸하고 2020년 새해, 새 출발을 위한 첫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토마을 운영과 국제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시어 참으로 깊은 고마움 전하여 올립니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과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요양병원과,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이 간절할 때,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 곁에 있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활용해 주시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 환우를 돌봄으로써 고통을 분담하고 힘들을 나누는, 그래서 더욱 힘이 나는 세상 함께 만들어 보아요.

언제나 선업공덕을 넓혀가는 정토마을 국경 없는 민들레인 후원가족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빕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이웃을 살펴보면, 서로의 허물들을 용서하고 참회하는 선업의 공덕 더욱 증장시키는 아름다운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해도 온전하게 행복하시고 강건하게 건강하시며, 원하시는 착한 소원들 모두 성취되게 하여지이다. ㅍ

국경없는민들레 몽골의료봉사 함께해요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 6차 의료봉사는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많은 분들의 동참은 어려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일정 | 2020. 6. 25.(목) ~ 7.1(수) 6박 7일
문의 | 052)255.8588 / 010.2926.8500



의약품 지원 계좌안내
농협 355-0057-1787-53
예금주 : (재)정토사관자재회



법화경 천일기도 10년을 돌아보며

정도마을은 자재요양병원 건립불사를 위해 법화경을 소의경전삼아 2008년 11월 12일, 천일기도 독송 법회를 대법당에서 입재봉행 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법화경 천일 철야기도와 법화경 독송 21일 장좌기도를 끊임없이 봉행하면서 정도마을은 명실공히 법화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08.11.12 법화경 철야정진 입재법문 무비 큰스님 "당신은 부처님"

오늘 법문은 약왕보살 본사품에서 말씀하신 법화경의 공덕과 위대함을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왕화보살이여 마치 모든 시내와 개천과 강들의 모든 물 가운데는 바다가 제일이듯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여래가 말씀하신 경 가운데 가장 깊고 크니라 -」

불교계의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고귀한 자비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스님과 신도님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자재요양병원을 짓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며 이 세상에 신선하고 새로운 불교의 참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여러분의 자비 의지를 뚜렷하고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늦은 밤에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자재공덕회" 증엄스님

용기도 믿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불가능이나 무능은 없어요.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오직 두려울 뿐, 지혜로 인생의 참뜻을 찾고 끈기로 한국 자재병원의 불사를 꾸려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법화경 천일기도 500일 성오스님

세상을 사는 데는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업의 힘과 원의 힘이라고 합니다. 업의 힘은 무명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원의 힘은 청정한 마음(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불자는 원력으로 살기를 발원해야 합니다. 아무리 육도를 윤회하더라도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는 보살행을 할 것이라고 원력을 세우고 정진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행의 좋은 선연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

리는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업보로 이 몸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공덕을 지었기에 사람의 몸을 받고 법화행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행이고 축복인 일입니다.

이렇듯 경을 읽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예배하면 수많은 불보살님이 이 도량과 그 가정에 감림하고 감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된 그 어떤 마군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예경하기를 중생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서원을 세워 병원을 건립하여 여러 중생이 영적인 행복과 건강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무루의 공덕입니다. 병원을 세워 영적인 편안을 추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기뻐합니다. 많은 병원이 있지만, 임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내 생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축복된 불사입니다. 병원불사가 나와 더불어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지인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와 발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사가 장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가 이루어져 연화정토를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법화경 천일기도 700일 무비 큰스님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을 출현시킨 스승이 제바달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보지 않으면 참 불자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법화경이 없었다면 제바달다는 영원한 적이고 용서받지 못할 극악무도한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법화경의 제바달다품은 우리가 생을 거듭하여 살아가는 마당에 나를 해치려하고 모함하고 아프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제바달다는 천왕여래가 되리라 하는 것이 수기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삼 분의 이가 수기입니다. 수기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기까지는 오직 제바달다 덕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법화경의 고귀하고 깊은 의미를 현실에서 한껏 활용하기 위해서 깊이 사유하고 실천하여 내 의식 속에 바로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재병원 불사 순례의 길

2011.10.23~25 관세음보살의 화현이신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특별법문 동참자들과 병원불사를 위한 시멘트 모연집과 명함을 전달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인도 땅까지 진출하여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정도마을 자재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후원자 모시기 운동에 힘을 모았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인연은 그렇게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고통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이 되어주었다.

2012.04.01 자재요양병원 기공식

통도사 주지 원산 큰스님과 수불 큰스님을 비롯해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 첫 삽을 뜨는 기공식에 후원자들과 안국선원 신도 2천 5백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의료기기모연과 108병상모연이 활발하게 시작되었고 시멘트 권선문이 후원자에게 전달되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복이 쌓이고 쌓여 법계를 장엄할 공덕이 되어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라는 모습으로 피어났다.

법화경 21일 장좌기도

매년 정초 24시간 법화경 독경이 이어지는 21일 장좌기도가 봉행된다. 국태민안,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로서 소망을 이루게 하고 복력과 공덕이 증장되며 업장이 소멸되는 제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한 장좌기도는 음력 정월보름 동해 바닷가에서 방생으로 회향한다.



3차 법화산림 고승초청 대법회

3차 천일기도는 큰스님들을 모시고 법화경 강설을 들었다. 법화경 기도 중에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를 받아 이운식을 하게 되었다. 법화경 천일기도 고승초청 대법회 회향식을 하는 날, 천 일 동안 동참하시어 독송한 공덕을 진리의 핵인 법화경 한 품, 한 품에 꿰어 108염주를 만들어 보내드렸다.

티벳 겔룩파 큰 스승 샤르빠 최제 립상 도르제 린포체 초청 법화경

정토마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구전 특별대법회, 린포체께서는 구전 없이 천 번 독경하는 것보다 구전을 받고 한 번 독경하는 것이 더 수승한 공덕이라고 말씀하셨다.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신 붓다의 구전 전승에 따라 구전을 내려주시는 것이며 현생에서 얻어지는 가장 큰 공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차에 걸친 법화경 천일기도 회향을 하고 1년에 걸쳐 반산스님께서 법화경 전품을 강설해 주셨다.

2014.06.15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개원

법화경 천 일 기도의 힘으로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 여법한 개원식을 성황리에 거행하였다. 10년의 법화경 기도를 이어오는 동안 많은 일을 이뤄냈다. 함께 울고 웃었던 모든 여정이 너무나도 소중한 역사가 되었음을 실감하게 한다. 🙏



제 5차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 동참안내

법화 참회 3일 기도 철야정진은 나쁜 악업의 뿌리를 제거하며, 선업공덕이 무량한 기도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말에 철야정진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불행을 제거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 성공과 안락함을 성취하게 합니다. 특별한 기도예 당신을 초대합니다.

입 재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9시
기도일정 | 매월 첫번째 금요일(오전 9시 입재), 토요일 철야정진 ~ 일요일(오전 7시 회향)
장 소 | 정토마을 석가세존 정골 사리 임시 법당
기도집전 | 능행스님과 정토마을 대중스님
동 참 비 | 월 10만원 (36개월) 설판재자 매월 자율보시
계좌안내 | 농협 351-1069-8274-83 (예금주 : 정토마을)
기도접수 | 052)255-8588, 010-2926-8500

법화경의 의미

법화경은 대승불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최고의 경전으로 꼽히고 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불교의 가장 근원적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화경은 모두 28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14품씩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첫째는 부처님이 태어나 자라고 집을 떠나 수행하다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진정한 실재, 열반 등 궁극의 차원이 펼쳐진다. 여기서 궁극의 차원을 다룬 이유는 모든 이에게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오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화경은 진리의 핵이요, 우주의 절대적 생명이며 부처님의 묘법이다. 우주 삼라만상은 그대로가 청정한 생명의 참모습이요. 세상만사는 그대로가 묘법의 작용이며 진리의 힘이다.

법화경을 읽고 쓰고 외우는 수행 속에서 삼세의 업장이 소멸하여 운명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설법하고 전하는 참된 실천 속에서 삼재팔난의 모든 업보가 소멸하여 발원하는 원들이 성취되고 중생들은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 법화도량에서 『너희들도 반드시 오는 세상에 성불하여 고통받는 무량중생을 구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법화설법을 잠깐 동안 들으면 다음 세상에는 하늘 궁전에 태어나리라. 설법을 듣다가 다른 이에게 자리를 내어주면 하늘 천왕, 높은 자리에 앉게 되리라. 한 사람을 권유하고 인도하여 법화설법을 듣게 하는 공덕이 이와 같은데 일심으로 읽고 쓰고 남들에게 설해주는 그 공덕은 무량하여 셀 수가 없다」

정토마을에서는 법화경을 소의경전 삼아 모든 기도를 하고 있다.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 가르침이 독송되는 정토마을 그 자체가 영산회상이 되어 불국정토를 만들기 위함이다. 정토마을 대중 모두에게 희유하고 값진 일이며 세세생생 자랑할 만한 일이다.

법화경은 바다와 같고 수미산과 같고 해와 달 같은 경으로 온갖 어리석음과 탐욕을 전부 없애고 그 외 8만 4천 가지 번뇌의 어둠을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깨뜨린다. 경전 중의 경전, 왕 중의 왕이다.

나무묘법연화경,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여섯 글자로 압축할 수 있다. 우리 불교는 지혜는 증장했으나 자비를 실천하려는 행은 많이 부족하기만 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토마을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원을 가지고 현실로 이끌어가는 곳이다.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특히 법화행자로서 불교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

묘법연화경

제1권

第十.

법사품

● 서봉 반산(瑞峰盤山) 스님

제 10. 법사품

-말법시대 포교는 여래사, 오종법사가 담당한다.

제1주제. 5종법사와 여래사如來使

1) 여래의 사도가 되어 포교하라

이제 법화경 설법이 적문법화의 유통분인 법사품에 이르게 됩니다. 사리불을 필두로 라후라에게까지, 천이백 아라한에게 모두 수기하시고, 배울 것이 남은 2천의 대중에게도 수기를 이미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자에 대한 수기를 마친 부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법화경 유통에 대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0-1

“부처님께서 또 약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래께서 멸도하신 후 만일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의 한 게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일념으로 따라 기뻐하는 이에 게는 내가 모두 아نوات타삼약삼보디의 수기를 주리라.」”

이렇게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 서사, 해설, 공양하는 이른바 5종법사(五種法師)에게, 여래께서 재세시(在世時)에는 깨달음을 얻게 하고, 멸도 후에 법화경을 유포하는 이는 모두 성불의 수기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여래께서 보낸 사자인 까답입니다. 지금부터는 법화경을 단지 휴대하고 다닌다거나 읽는 등 조그만 공덕행이나 염불만 하더라도 또는 법화경에 대해 공경하고 공양하더라도 모두 그 사람에게 성불의 수기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10-2

“약왕이여, 반드시 알라. 이런 사람은 청정한 업과 보를 스스로 버리고, 내가 멸도한 후도 중생을 불쌍히 여기어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이 경을 널리 분별하여 설하리라. 만일 이런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멸도한 후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법화경의 한 구절을 말해

주면 너는 반드시 알라. 이런 사람은 곧 여래께서 보낸 사자로 여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니, 하물며 큰 대중 가운데 많은 인간을 위해 설법함이야 말할 것이 있느냐.”

부처님 멸도 후나 말법시대에 불법을 누가 포교해야 하나? 이것이 열반을 앞둔 부처님의 고민이요 절체절명의 화두였다. 결론은 법화경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혜명을 이어가는 방편이요, 그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5종법사 또는 여래사로 규정한다.

10-3

만일 어떤 사람 법화경을 수지하면 부처님의 사자로서 중생을 위하여니

若有能受持 妙法華經者是 當知佛所使로 愍念諸衆生이니라

10-4

이 경전 받은 이는 청정한 많은 국토 스스로 싫다 하고 이런 곳에 났느니라.

諸有能受持 妙法華經者是 捨於清淨土하고 愍衆故生此니

10-5

하늘 꽃과 하늘 향 보배로운 의복들과 아름다운 보물들로 설법자를 공양하라.

應以天華香과 及天寶衣服과 天上妙寶聚로 供養說法者니라

2)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 서사, 해설, 공양하는 5종법사

법화경에서 법사는 바로 부처님의 명을 받고 말법시대에 불법을 지켜가는 여래의 사자(如來使)를 말합니다. 또 법사는 바로 화엄경에서 선재동자를 이끌어주던 선지식입니다. 경전을 해설하고 강의 하는 사람만을 한정하여 법사라 하지 않고, 법화경을 들고 다닌다거나 독송하고 사경하는 이는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서는 법화경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모시고 공양 올리는 분도 훌륭한 법사인 것입니다. 이 분들에 의해 불법이 수호되는 까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이와 같은 5종법사를 부처님처럼 받들고 존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 여래사에게 여래의 옷과 방과 자리를 내어주라

위의 경문처럼 법화경을 유포하는 이를 여래께서는 항상 보호하고 부처님의 옷과 방과 자리를 내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불법포교의 큰 사명을 띤 포교사들, 법사스님, 또 법화경을 신앙하는 모든 분들은 이런 큰 가피와 자격을 부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법화경 전편에 이런 메시지가 가득하지만 특히 제10 법사품에서 법화행자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두려움 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모든 가피력을 아끼지 않으려고, “여래의 옷을 입혀주고, 여래의 방에 들어가게 하고 여래의 자리에 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첫째, 법화경 유포의 중요성 둘째, 여래사에게 부처님의 자리를 내주시고 셋째, 법사의 모자라는 부분은 부처님께서 보태주고 채워주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문에서는, “그 때 부처님께서 약왕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설하는 경전이 한량없는 천만억으로 이미 설하기도 하였고, 지금도 설하며 앞으로도 설하겠지만, 이 《묘법연화경》이 가장 믿기 어

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니라. 약왕이여, 이 경전은 여러 부처님께서 비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바이니, 분포하여 함부로 설해주지 말라. 이 경전은 또 여러 부처님께서 지극히 수호하시느니라. 옛 날부터 지금까지 아직 나타내어 설하지 않는 것은 여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원망과 질투가 많 았던 까닭인데, 하물며 멸도하신 뒤에야 더 말할 것이 있느냐? 약왕이여, 반드시 알라. 여래 멸도하 신 뒤에도 이 경을 받아 가지고 쓰거나 읽으며 외우고 공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는 이는, 여래께서 곧 옷으로 덮어주며 또 타방세계에 계신 여러 부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리라. 이런 사 람은 큰 신력과 지원력志願力과 여러 가지 선근력善根力이 있나니, 바로 알라. 이런 사람은 여래와 더불어 자며, 여래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는 것과 같느니라.”

10-7
이 경전 설하려면 여래의 방 들어가서
부처님 옷을 입고 세존 자리 높이 앉아
대중 모아 두려움 없이 널리 분별할 것이니

若人說此經인댄 應入如來室하야
著於如來衣하며 而坐如來座라사
處衆無所畏하야 廣爲分別說이니

10-8
대자비는 방이 되고 옷은 인육의 부드러움
빈 법 자리 높이 앉아 4부중께 설법하며

大慈悲爲室하고 柔和忍辱衣와
諸法空爲座하야 處此爲說法하며

10-9
만일 이 법화경 설하고 분별할 때
어떤 사람 나쁜 말로 훼방하고 욕을 하며
칼 막대기와 돌로 때리고 던지어도
지혜 신통 갖추신 부처님 생각으로
그 모든 고통을 능히 다 참느니라.

若說此經時에
有人惡口罵하야
加刀杖瓦石이라도
念佛故應忍이니라

4) 변화인을 보내어 대중을 모아주며, 경문을 잊으면 귓속말로 알려주리

10-10
내가 멸도한 후 이 경을 설하는 이
공양할 사부 대중 변화로 보내주고,

若我滅度後에 能說此經者면
我遣化四衆인 比丘比丘尼와

10-11
모든 중생 인도하여 그 법사가 설하는 법
모두 다 듣게 하려 그 앞에 모아 주며

及清信士女하야 供養於法師하고
引導諸衆生하야 集之令聽法하며

10-12
어떤 사람 칼 막대나 기와 돌로 때리거든
변화인을 곧 보내어 그로부터 보호하며,

若人欲加惡하야 刀杖及瓦石거든
則遣變化人하야 爲之作衛護하며

법화행자가 강의나 설법을 하려 할 때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들을 모아주며, 법사가 경문을 잊었으 면 돌아와서 알려주고 용기를 북돋우어 설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소호념佛所護念 곧 여래께서 보호하고 염려하여서 법화경 유포를 도와주신다는 직 접적인 표현이니, 부처님의 법화신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뛰어넘어 직접 가피를 주신다는 가장 적극적인 말씀이 아닐까요! 그러니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 여래의 옷을 입고 진리를 설하라. 그러니 내가 부족하고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법화경을 유포 하라는 간곡한 말씀이 아닐까요!

10-13
“약왕이여,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에서 변화인을 보내어 그를 위해 법 들을 대중을 모이게 하며, 또 변화된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들을 보내어 그 설법을 듣게 하리니, 이 변화인들이 법을 듣고 믿 어 가지며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여 따르리라. 만일 설법하는 이가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내 가 그 때 널리 하늘·용·귀신·건달바·아수라 등을 보내어 그 설법을 듣게 하며, 또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있을지라도 설법하는 이로 하여금 나의 몸을 얻어 보게 하며, 또 만일 설법하다가 이 경의 귀 절을 잊으면 내가 돌아와서 알려주고 구족함을 얻게 하리라.”

10-14
설법을 하는 이가 고요한 데 홀로 있어
속세를 멀리 떠나 이 경전을 독송하면,

若說法之人이 獨在空閑處하야
寂寞無人聲하고 讀誦此經典거든

10-15
그를 위해 나는 청정 광명 나타내며
한 귀절만 잊게 되면 설하여 통해 주고

我爾時爲現 清淨光明身하며
若忘失章句면 爲說令通利하며

10-16
이런 덕을 갖춘 이가 4부 중께 법 설하고
고요한 곳 경 읽으면 내 몸을 얻어 보며,

若人具是德하야 或爲四衆說하고
空處讀誦經하면 皆得見我身하며

10-17
하늘 용왕 야차 귀신 내가 모두 보내어서
그가 설하는 법 모두 다 듣게 하리니

若人在空閑거든 我遣天龍王과
夜叉鬼神等하야 爲作聽法衆하며

10-18
이런 사람 설법 즐겨 걸림이 없는 것은
부처님의 힘일러니 대중을 환희케 하며,

是人樂說法하야 分別無罣礙하면
諸佛護念故로 能令大衆喜니라

10-19
법사를 친근하면 보살도 빨리 얻고
법사 따라 배우면 많은 부처 친견하리.

若親近法師하야 速得菩薩道인댄
隨順是師學이니 得見恒沙佛이니라

제2주제. 법화경이 가장 이해하고 믿기 어렵다

1) 고원에서 우물 파는 비유[鑿井喻]

10-20

약왕이여, 말하노라. 내가 설한 경전 중에 藥王今告汝하노니 我所說諸經인
이 같은 《묘법연화경》이 가장 제일이니라. 而於此經中에 法華最第一이니라

위에서 본 계승처럼 법화경이 가장 이해하고 믿기 어렵다고 다시 강조하시면서 결론처럼 법화경은 최고의 경전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5종법사를 존중하고 부처님처럼 대접해야 하는 것은 법화경이 경전 중의 최고이며 결론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법화경은 유일신적 경향 곧 석가모니 1불신앙을 보이면서도 기독교처럼 배타적인 신앙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화경의 회삼귀일會三歸一의 가르침이 상대를 배척하거나 자기 종파를 드러내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 일대사업 곧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은 대승을 펼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0-21

“약왕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려고 높은 언덕에 우물을 팔 적에, 마른 흙이 아직 나오는 것을 보고 물이 먼 줄을 알지만, 부지런히 쉬지 않고 땅을 파서 점차로 젖은 흙이 나오며 진흙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마음에 물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과 같느니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 법화경을 아직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능히 닦고 익히지 못하면 반드시 알라. 이런 사람은 아نوات라삼약삼보디에 아직 거리가 먼 것이요, 만일 이 법화경을 얻어 듣고 이해하여 닦고 익히는 이는 아نوات라삼약삼보디에 가까운 줄을 알 것이니, 왜냐하면 일체 보살의 아نوات라삼약삼보디는 다 이 경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니라.

2) 한국은 사경문화로 발달된 세계최고 인쇄술의 나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쇄문화국가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경수행의 유행으로 인하여 발달한 것이라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필사筆寫를 하다 보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도장을 찍듯이 판자를 다듬어 찍어내면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판인쇄물로 발전되었으리라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신라대 경덕왕 10년인 서기 751년경 최초의 목판본이며, 1966년 가을 석가탑 보수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도 바로 사경공덕을 많이 쌓은 우리 문화의 소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경의 공덕과 수행은 고려시대 국난극복의 거룩한 방편으로 쓰여서 몽고군의 침략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도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니, 이렇게 조성된 팔만대장경은 조선 초기까지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되어 있었다가, 해인사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훈민정음의 창제와 금속활자본은 1329년에 최초로 직지심경을 간행하였습니다. 본래 《남명천화상주 증도가》였지만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속활자문화에 의한 세계최초

인쇄물도 모두 사경문화의 영향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사경수행은 마음을 편안하게 집중시키고, 경전의 내용을 정독하는 좋은 방편이며, 부처님 전신사리를 직접 손으로 써보는 공덕이 무량한 수행입니다.

3) 용악스님의 환생과 인경불사 - [신행이야기 3.]

조선조 말기에 용악(聳岳, 1830-1908)이란 스님이 계셨지요. 본래 석왕사釋王寺 스님인데 참선은 못하고 경 읽고 염불하고 선법禪法이 쇠퇴하던 시기니까 《금강경金剛經》을 십여 년 동안 여러 수 십만 번 독송하여 차아에서 사리舍利가 나왔다고 합니다. 석왕사에 있을 때에 꿈을 꾸었는데 오산 수암사라는 곳에 가서 차담을 대접받고 또 차를 석 잔 받은 일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해마다 그 날이 되면 꿈에 오산 수암사에 가서 그렇게 대접을 받곤하는 것이 참으로 희한하게 생각이 들곤 하였어요. 오산 수암사가 어디에 있는 절인가 하고 늘 궁금하게 여기던 차에 하루는 통도사 객실에서 어느 스님이 무슨 말을 하던 중에 오산 무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퍼뜩 정신이 들어서 오산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고 하니, 그 스님이 “소승이 오산 수암사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반갑든지, 그리고 수암사의 대강 모습이 이리이러하냐고 물으니, “네 그렇습니다마는, 스님께서 수암사에 언제 와보셨습니까? 수암사는 함경북도 멀리 있는 절인데...”

“그러면 모월 모일은 그 절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 날입니까?” 하면서 매년 이상한 꿈을 꾸던 날을 물어보니까,

“예, 그날이 우리 오산 수암사의 중창주重創主 되시는 스님의 제삿날입니다.”

아하, 그랬었구나,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자기는 오산 수암사의 중창주로 있다가 다시 태어나 이 몸을 받았기에 제삿날마다 꿈에 그 제사를 받아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면 그 스님을 뵈었으면 그 스님이 평소에 원하시던 바가 무엇입니까?”

“그 스님께서서는 해인사海印寺의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을 인쇄를 해서 모셔놓고 경을 보려고 원을 하셨더랬습니다.”

용악스님이 평소에 늘 생각이 떠나지 않던 일이 바로 해인사 고려대장경을 인쇄해서 모셔놓고 읽으려던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내가 금생에 처음으로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산 수암사를 중창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소원이었구나. 마침내 원력을 성취하려고 통도사通度寺 적멸보궁寂滅寶宮을 시작으로 백일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를 마치는 날 자장암慈藏庵의 금개구리가 내려와서 큰 법당 탁자 위 그 뜨거운 불기佛器에 붙곤 하는 상서를 보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정유년 丁酉年에는 해인사 장경각 정원인 금잔디 밭에서 백일기도를 하였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회향하고 그때 해인사에 화주化主로 계시는 범운화상梵雲和尚에게 “이제 나라에서 장경불사藏經佛事를 하라고 할 터이니 권선책을 하나 미리 매어놓으시오”라고 말했다. 기도하던 스님이 영문도 모르는 권선책을 매어 놓으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뿐이었지요.

그 이듬해인 무술년戊戌年 5월 달 뜻밖에도 나라에서 해인사에 통보가 왔는데 장경불사를 할 터이니 화주化主冊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였지요. 그렇게 해서 인경불사를 성취하여 대장경 네 부를 인경하였는데 일부는 통도사 일부는 해인사 일부는 송광사 불법승 삼보사찰에 나누어 모시고 일부는 전국의 유명한 절에 나누어 모시게 하였다. (경봉큰스님 법어집에서) 卍



정토 공양간 이야기

태감 | 정토마을 원주



정토마을 공양간의 하루는 오전 5시 50분에 시작된다.

어두운 새벽, 대문을 열고 공양간을 향해 달려오는 자애 보살님과 학사 공부에 매진하면서 불화를 그리는 처녀 현영 보살님이 대중 공양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정토마을의 귀여운 두 명의 행자님들이 함께한다. 비록 설거지와 식사 때 필요한 그릇들을 정리해 주는 정도이지만, 공양간의 화사한 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매일 아침 7시, 대중 목탁 소리와 함께 공양간의 식사는 두 줄로 나누어 뷔페로 차려진다. 한 곳은 스님용으로 노스님과 비구니스님들, 티벳 스님들과 행자님과 객 스님들이 드시고, 다른 한곳에는 재가자들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차려진다.

학교에 가시는 티벳 스님들의 도시락까지 챙겨야 하는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아침이 끝나고 나면 공양간 식구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시 쉬를 가지게 되고, 오전 10시가 되면 다시 북적거리며 많은 대중이 먹을 점심 준비가 시작된다. 점심 공양은 아침과 달리 많은 양의 식사가 준비된다. 스님들과 직원 뿐 아니라, 병원의 보호자들과 점심시간 공양간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이 정성껏 차려진다. 저녁에는 따뜻한 국과 두 가지의 새 반찬 정도로 하루 중 가장 간단한 공양으로 공양간의 일과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일과를 마치고 각자의 집과 방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밤하늘에 별들이 초롱초롱 자신을 뽐내는 시간, 행복함이 묻어 있는 오늘을 마무리한다.

정토마을의 금차원 공양간은 행사나 기도가 있을 때는 초비상이 된다. 행사마다 나가야 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 정토마을의 공양간은 늘 바쁜 오늘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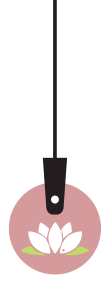
얼마 전 정토마을은 2박 3일 동안 일 년 양식이 될 김장을 담갔다. 2,200포기 배추와 열무김치, 석박지, 동치미, 백김치를 했다. 첫날은 배추 자르기와 절이기, 둘째 날은 배추 씻어 물빼기와 모든 재료 씻어 썰기, 셋째 날은 양념 버무리기와 각종 김치 담기, 김치 저장소로 옮기기, 정리정돈을 기준으로 정토마을의 김장은 끝이 났다.

2박 3일 동안 공양간에는 그야말로 폭탄 맞은 것처럼 난장판이었지만 봉사자분들의 도움을 보태며 그 많은 봉사자와 직원들의 공양을 묵묵히 맛나게 만들어 올릴 수 있었다.

김장을 마치고 쉴 새도 없이 운문사 학인 스님들을 위한 '생사의 장' 5박 6일 교육이 시작되었다. 70명의 학인 스님과 대중의 끼니를 준비하면서 숨 고를 새 없는 분주한 공양간이었지만, 준비된 공양을 맛있게 먹고 있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감과 뿌듯한 마음이 샘솟아 오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5박 6일 동안 공양간에서 함께 해주신 봉사자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손길에서 따뜻함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나 많은 인원을 위한 공양을 하루도 아닌 여러 날을 무사히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해진다.

평소보다 이른 새벽 4시 30분부터 공양 준비를 하고, 더 늦은 마무리를 해야 했던 날들이 힘들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행복하게 공양을 만드는 공양간 식구들이 있어 행복한 오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정토마을의 공양간은 숨쉬고 있는 인정과 사랑이 샘솟는 곳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꿈을 만든다. 이 따뜻한 공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인플루엔자

정은진 |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가정의학과 부장

일반인에게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항원 소변이(antigenic drift)에 의해서 매년 겨울철에 인구의 10~20%에서 유행이 발생합니다. 10~40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A형 인플루엔자의 대유행(pandemic)은 항원 대변이(antigenic shift)에 의한 것으로,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증상

1. 임상소견

인플루엔자는 흔히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또는 피로감과 같은 전신증상과 함께 기침, 인후통과 같은 호흡기 증상의 갑작스러운 시작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흔한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일반적인 감기와 증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진단이 어렵습니다. 임상적으로 감별에 중요한 점은 감기와 달리 인플루엔자는 갑작스럽게 시작되기 때문에 고열(38~41℃)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감기는 미열이 서서히 시작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한 인플루엔자는 두통, 피로감, 근육통 및 관절통 등 소위 심한 몸살이라고 표현하는 전신 증상이 뚜렷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고열과 심한 근육통 등은 초기 2~3일 동안 심하며, 이후에 호전됩니다. 감기는 미열과 함께 콧물, 코막힘 및 인후통 등 상기도 증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며, 전신 증상은 미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에서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은 전신 증상이 호전될 때 나타나며, 일부 환자에서 기침이 1주 이상 지속하면서 흉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고열이 지속하고 기침, 누런 가래, 호흡곤란 등이 증상이 나타나면 폐렴과 같은 하부 호흡기 합병증의 발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2. 합병증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사망의 주요 원인은 호흡기 합병증(주로 폐렴)과 기저 심폐질환의 악화입니다. 흔하게는 소아에게서 크룹, 급성 부비동염, 급성 중이염과 같은 상부 호흡기 합병증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부 호흡기 합병증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폐렴, 만성폐쇄성 폐 질환의 악화 및 이차 감염에 의한 세균 폐렴(폐렴균, 헤모필루스균, 황색포도알균 등에 의한)으로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며,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호흡기 이외 중증 합병증으로 근육염, 횡문근융해증, 심근염, 독성쇼크증후군, 중추신경계 이상(길랑-바레 증후군, 뇌염), 라이(Reye)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의 90% 이상이 65세 이상의 연령군입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및 사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발병 시 항바이러스제의 조기 투약이 필요한 대상이 됩니다.

진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후에 전형적인 인플루엔자-유사 질환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인플루엔자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실험실적으로는 후두 도말물, 비인두 세척물 또는 객담 등을 채취하여 바이러스 배양 또는 유전자 증폭검사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하루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신속항원검사는 인후 도말 검체를 이용하여 10~15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한 진단법입니다.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예민도는 60~80%로,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라도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확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치료

인플루엔자의 치료는 항바이러스제 요법과 기타 대증 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영유아 및 만성 내과 질환 환자에서의 인플루엔자는 폐렴 등 중증 합병증 발생, 병원 입원 및 사망의 위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항바이러스제

인플루엔자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타미플루와 리렌자입니다. 타미플루는 1세 이상에서 경구 복용하여 전신에 약물이 흡수되어 효과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렌자는 파우더 형태로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므로, 약물 대부분이 호흡기 및 폐에 분포하며 전신으로는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약제 모두 증상 시작 2일 이내에 투약하면 고열 등 증상의 지속 기간을 1~1.5일 단축하여 더 일찍 정상 생활에 복귀토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아에서 중이염의 발생률을 낮추어 항생제 사용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은 약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타미플루는 복용자의 약 10%에서 오심과 구토를 일으킬 수 있으나, 음식과 같이 복용하면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10대 청소년에서 이상 행동과 같은 신경정신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리렌자는 흡입 제제이므로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기관지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리렌자는 7세 미만에서는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A형(H1N1)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이며, 리렌자에 대한 내성은 아직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미플루 내성 인플루엔자는 리렌자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2. 항생제 요법

보통 인플루엔자는 2~3일 정도 열이 나다가 호전되지만, 고열이 지속하고 기침과 누런 가래, 흉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다면 폐렴 합병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환자에서 이차 세균 폐렴 같은 급성 세균 합병증이 의심되거나 또는 확인되었을 때에는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3. 대증요법

합병증이 없는 단순 인플루엔자 환자에게는 두통, 근육통 및 발열을 해소하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acetaminophen)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피린은 18세 미만 소아에서 라이증후군 발생과의 관련 가능성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급성기 동안 안정을 취하고 수분 섭취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질환의 경과가 위중했던 경우에는 회복된 후에 점진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방

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미리 접종받는 것입니다.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 고전적인 예방법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지켜야 합니다.

1. 백신 접종

1) 인플루엔자 백신의 성분 및 접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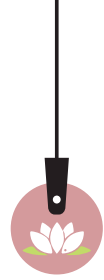
WHO에서는 매년 2월 말에 그해 겨울철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A형 strongN2, A형 H1N1 및 B형 바이러스주 각각 1가지씩 모두 3가지 바이러스주를 백신주로 발표하며, 이에 따라 백신 회사들은 3가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적어도 유행 1개월 전에 맞아야 효과적이므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은 10월, 11월 중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라도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인플루엔자 절기 중 접종하여야 합니다.

2)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 효과

인플루엔자 백신은 인플루엔자 발병을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임상 증상 및 경과의 완화, 입원율 및 사망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Q.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면 감기도 예방되나요?

A.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감기와는 다른 병입니다. 증상만으로 인플루엔자와 다른 호흡기 감염증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에코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상기도염을 말하며, 보통 2~5일 만에 합병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반면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 바이러스 중 일부 항원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인 감기에는 효과가 없고, 또한 인플루엔자의 아형이 다른 경우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



그 시절로 돌아가 자신에게 조언한다면?

능 인 | 자재요양병원 영적돌봄 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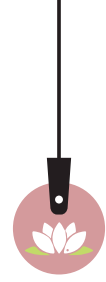
늘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생을 재미없게 만든다. 흥미로운 삶을 위해서는 보다 더 나은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자기 주도 신경가소성 SDN(Self-Directed Neuroplasticity) 스스로 경험의 질을 높임으로써 오래된 신경회로를 없애고 새로운 회로를 형성해 가는 것을 뜻하는데 “오래된 신경회로”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는 퇴직 후의 여유 있는 삶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 그러나 명예퇴직을 한 후 그토록 원했던 미국에 건너간 환자에게는 절망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 열심히 벌어서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의 가족들은 너무도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환자는 절망에 가깝고 자신이 그동안 애써왔던 일들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애쓰는 나머지 청천벽력과 같은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 후 환자는 죽음을 맞이 위해 고국으로 돌아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였다. 환자는 처음 만났을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냉소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필자는 워낙 거절에 익숙한지라(?) 환자 존재 자체에 마음 시선을 두고 바라보았다. 환자의 외로움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전달되어 내 마음에 서서히 옮겨왔다. 환자의 피해 의식과 나의 피해 의식의 경험이 만나는 순간 알 수 없는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다. 억울함과 좌절감이 서로 엉키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연민심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나와 환자와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회로란 더 이상 과거에 있지 않은 것이다. 현재에 돌아와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이었다. 나는 용기를 가지고 환자에게 다가가 화가 나 있는 환자의 모습에 당황스러운 마음과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다. 그 후 환자는 오히려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천천히,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위기나 트라우마의 순간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데 너무도 많은 주위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상대의 마음에 다가가 조금씩 해결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그 순간 여유 있게 기다려 주는 것이 최상의 치유임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회로를 시작하기 위한 질문으로 “그 시절로 돌아가 자신에게 조언한다면?”이라는 질문을 초대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머물러 본다. 아마도 “너무 애쓰지 마.”라고 말할 것 같다.



날마다 行 하는 삶을

전혜경 | 울산 정토회 회장

30여 년 동안은 교직 생활로 인해 종교나 봉사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던 2014년 5월, 저는 정토사 불교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과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첫 만남부터 낯설지 않았고, 항상 푸근함으로 제게 다가 벌써 6년째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으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토 도량이라는 운명인가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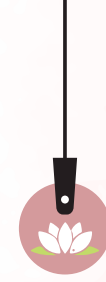
요양병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드리거나, 말벗이 될 때는 멀리 경기 친정엄마 생각에 가슴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조리실(공양간) 봉사할 때는 식자재 다듬기, 환경정비를 하며 건강식으로 준비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항상 뿌듯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도반들과 헤어지면서 또다.

“과거 생의 내가 궁금하면 지금의 내 삶을 보고, 미래 생의 내가 궁금하면 지금의 금의 삶이 편안한 사람은 복을 까먹고 있는 중이니, 그럴수록 많은 선업을 쌓아야 다.”

날마다 행(行)하는 삶을 되새기게 하는 글귀입니다.

주변에 봉사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 정토마을자재요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나의 친정

김다운 | 요양병동 보호자

2016년 12월, 나에게 울타리인 엄마가 쓰러지신 악몽 같은 달이었다. 엄마는 6차례의 수술과 시술을 받으셨지만, 결과는 임종을 준비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뿐이었다.

지금 엄마는 이곳 자재요양병원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다. 처음 이곳에 오실 때에는 겨우 몇 마디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였고, 삼키는 기능도 떨어져 주사약에 의지해야 했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영적돌봄가 스님께서 엄마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해 주셨다. 행복했던 과거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 드렸고, 아버지에게 고운 꽃다발도 받으셨다. 그렇게 많이 웃고 눈물 흘린 시간을 보낸 뒤 엄마는 조금씩 음식을 삼키기 시작하셨고, 웃음도 보여주셨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토록 큰 변화, 기적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곳은 불교재단 병원이지만, 엄마의 머리맡에는 성모님이 온화하게 자리하고 계신다. 천주교 신자인 엄마를 위해 영적돌봄가 스님께서 가져다주신 성모상이다. 종교를 불문한 따뜻하고 섬세한 돌봄이 우리 가족에게는 늘 큰 감동이 된다.

언제나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엄마. 엄마와 나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앞 치유동산 약사여래 불상 앞에 가서 묵주 알을 돌리며 기도문을 주거나 받거나 한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 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 길을 걸어갑니다.” 예쁜 가을을 바라보며 함께 노래도 부른다.

엄마가 쓰러졌을 때 우리 자매들이 마음 모아 기도했던 지향들이 있다. 엄마와 눈 마주치기, 함께 노래 부르기, 함께 걸었던 길을 다시 걷기... 비록 휠체어에 앉아 움직이시지만,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곳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의 따뜻한 돌봄과 스님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사랑이 모여 엄마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 것 같다.

주말이 되면 아이들은 외갓집에 가자고 한다. 병원 앞마당에서 아이들은 자전거와 씽씽카를 타고, 우리는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평온한 주말을 보낸다. 엄마가 평생 바라시던 넓은 정원에 손자 손녀들이 뛰어노는 외갓집. 바로 이곳이 엄마의 집이고, 아이들의 외갓집이며, 나의 친정이다. 🙏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김경일 |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주임교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불안과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마음공부를 하기도 한다. 보다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각자가 판단하고 생각한 일들을 하게 된다. 공간을 많이 채워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물질을 탐하고 모을 것이며, 명예가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투를 잡으려 할 것이고, 날씬해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몸매를 가꿀 것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은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각자의 성품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초기 수행공동체였던 그노시스(신지주의) 학파에서는 인간의 수준을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육체적 인간, 정신적 인간, 영적 인간이 그것이다. 육체적 수준의 사람들은 주로 물질과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정신적 수준의 사람들은 정신적인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영적 수준의 사람들은 종교적,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했다.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며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영적인 단계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주여! 주여! 하고 신을 찬탄하고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불교 유식학에도 인간의 수준(씨앗)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보살종성(菩薩種姓), 연각종성(緣覺種姓), 성문종성(聲聞種姓), 무성종성(無性種姓), 부정종성(不定種姓)이 그것이다. 이런 수준은 선천적인 것이어서 개개인의 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각자의 수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추구하는 행복의 수준도 다를 것이다. 아래 단계의 중생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자기 성장이지만 통찰이 깊지 않다면 자신의 수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최근에 성립된 심리학의 영역 중에 긍정심리학이란 것이 있다. 2009년에 국제학회가 창설되었으니 이제 꼬박 10년이 된 짧은 역사를 지닌 학문 분야이지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긍정심리학은 현존하는 심리학이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파헤치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느냐는 자기반성에서 출발한다. 과학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했으며 문학은 인간의 삶을 더욱 향기롭게 만들었고 경제학은 인간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심리학은 인간의 삶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현재의 심리학이 인간의 심리적 장애나 병리적인 측면, 그리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 주로 연구해 왔다면,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 즉 강점이나 훌륭한 덕성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심리학이다. 긍정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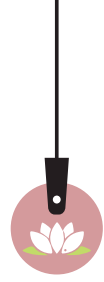
첫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엇이건 목표를 설정해두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59세의 어느 유명 여자 가수는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하려고 매일 하루 3시간씩 연습을 하여 실제로 대회에 출전했다. 폐지를 줍는 경우에도 하루 또는 한 달의 목표량을 정한다든지 또는 일정 금액을 모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질 때, 일하는 의욕이 더 생기고 행복감도 더 느끼게 된다.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넘어야 할 산을 스스로 만들며 살아간다.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그들의 삶은 항상 의미가 따르게 된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세월이 떠밀려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월을 헤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어떤 목표, 어떤 목

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스스로 한 번 짚은 물어봄직하다.

둘째가 불필요한 비교를 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자기보다 앞서거나 잘사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간다. 현대인들은 비교하는 삶에 익숙하다. 오랜 경쟁으로 인해 그런 습성이 강화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주변을 살피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지에 관심을 두게 된다. 그것은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현재의 달성 정도를 비교한다. 즉, 타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경쟁하는 것이다.

셋째는 행복한 사람들은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다.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옛말에 '눈알이 빠져도 이만하길 다행이다.'라는 말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지혜이다.

불교에서는 행복에 이르는 근본적인 길을 '탐, 진,치' 삼독을 이기는 것이라고 한다. 욕망(탐심)은 고통의 근원이지만 욕망을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남을 미워하는 욕망, 부질없고 허황된 것을 바라는 욕망, 도를 넘는 지나친 욕망도 대단히 많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극복하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이 될 것이다. 🙏



가슴에서 열어가는 기도의 빛

지안 | 불교 임상기도·임종의식 집중수련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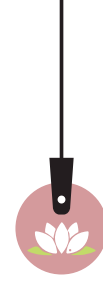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그 죽음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자명한 사실 앞에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것이 나쁜만은 아닐 것이다. 나 자신이나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어쩌면 삶에서 알아야 할 가장 필요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정토마을의 불교 임상기도 임종의식 집중수련에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4박 5일간의 교육 일정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었다. 하지만 죽음을 주제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과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은 정말로 귀중한 시간이었다.

평생을 호스피스에 몸담아 헌신하신 수녀님과 호스피스 현장에서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영적 돌봄가 스님, 현직 호스피스 병동 수간호사님이 전해주시는 전문지식 혹은 가슴 아프고도 감동적인 수많은 사례들은 일상에 젖어 살아가던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었다.

그 가운데서도 교육원장이신 능행 스님의 지도 아래 임종의 순간에 이룬 이들을 위한 실제적인 기도법과 만트라를 익히는 훈련은 너무나도 유익하고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임종의 순간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끊임없이 알아차림하며, 임종자의 의식을 최대한 맑고 밝고 평온하게 이끌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기도법들은 활짝 열린 가슴으로부터 나온 온전한 자비의 정수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모든 임종기도의 과정들은 남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먼저 깨끗하게 정화되고 치유되는 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기도 수련을 통해서 한결 더 크게 지혜의 눈이 열리고, 한층 더 깊게 자비의 가슴이 열린 것을 느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원장 능행 스님과 마하보디교육원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사를 드리며, 더 많은 이들이 이 귀중한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발원해 본다. 🙏



스리랑카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이진희 | 스리랑카 의료봉사 인솔단장

스리랑카 데니아야 의료봉사는 불보살의 향기가 나는 마하위하라사찰에서 이루어졌다.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내과, 한방, 소아과, 치과, 안과 진료를 한국과 스리랑카 의료진의 협진으로 3,905명의 환자 진료를 보았다. 더운 날씨에 새벽 4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다.

개인적으로 4번째 참여하는 봉사인데 이번 주방 설거지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잘 정제되지 않은 가스의 그을음이 심하여 두 번, 세 번 닦아야 했기에 주방 식구들은 휴식 한번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 보살행을 한다는 것이 이렇듯 고달픈 여정임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주어진 메뉴를 척척 해내는 것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맛있게 먹어주니 우리의 업무가 더 빛이 났을 것이다.

의료봉사 여정을 마치고는 양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스리랑카 전통악기 연주 및 강강술래를 부르며 어울림한마당이 열렸다.

그렇게 의료봉사 여정을 마치고 스리랑카 성지순례를 나섰다. 가는 곳마다 붓다의 가르침이 살아 있는 곳, 많고 많은 불상을 보면서 온전한 붓다의 나라임이 실감났다. 국민의 70%가 신심 견고한 불자의 나라 스리랑카에서 수많은 붓다를 만나고 온 느낌이다.

의료봉사를 잘 다녀오라면서 약 보시를 하고 현지에 가서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오라고 현금까지 지원해준 나의 회사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라고 지지해준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크다.

이번 성지순례 때 가이드께서 범구경을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와닿아 적어봅니다.

“벗어남의 맛을 알고 내려놓음의 맛을 알면 근심과 탐욕에서 벗어나 진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네.”

다음의 의료봉사지인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시 환희심을 느껴보고 싶다. 🙏

현묵 송봉관

정토마을과 역사를 같이해 오신 분. 현대자동차 불자회 소속이며, 정념회 부회장 소임으로 매달 정토마을에 필요한 물품을 바리바리 준비하여 신고 오셔서 굶은 일을 척척 해주시는 분. 참 불자상이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주며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정신으로 정토마을 구석구석은 현묵 민들레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하면 어디인들 날아가 꽃을 피울 정토마을 현묵 송봉관 민들레님을 소개합니다.

Q. 정토마을과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요?

2004년이었을 거예요. 방송대학 재학시절 불자회 카페 운영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카페에 불교병원을 짓는다는 홍보 글이 올라왔어요. 그게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었던 거죠. 그해에 산사음악회를 연다고 하여 그날 딸과 함께 왔어요. 그게 첫 만남이었네요.

Q. 후원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불교병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은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어요. 산중에 계시거나 토굴에 계시는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난감해지는 일이 많고 불자들도 그렇지만 아프신 스님들은 치료받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니까요. 임종을 돌봐 줄 병원을 짓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후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Q.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후원을 이어가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라는 능행스님의 책을 읽고 스님께서 원을 세우신 동기와 해 오신 일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신 나이를 대강 계산해보니 삼십 대 초반이신 것 같아요. 요즘은 삼십이 되어도 철없이 멋이나 부리고 부모 속이나 썩이는 애들도 많은데 비구도 아닌 비구니스님께서 이러한 커다란 원을 세우시고 일궈나가시는데, 당연히 힘을 보태야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Q. 후원하시면서 행복을 느꼈던 특별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국제 의료봉사에 함께 동행하지 못해 늘 송구한 마음이지만, 그러한 의미 있는 활동들에 필요한 물품을 여기저기서 모아서 전해 드릴 때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행복을 느꼈던 순간은 마하보디교육원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이어오고 있는 불교호스피스교육을 받게 되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교육은 두꺼운 껍질을 한 겹 벗겨냄과 같은 환희로운 경험을 저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호스피스교육 후배들을 위해 교육 때마다 봉사로 함께하며 저는 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Q. 정토마을 민들레로서 앞으로의 바람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능행스님께서 처음 세계 어려운 이웃 나라에 눈을 돌리신 것은 물 없는 곳에 우물을 파주자는 마음이었습시다. 이제는 인도나 스리랑카, 네팔 등 어려운 이웃 나라에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불교 환경연대를 조직하여 환경운동도 하고 계시지요.

이 모두를 민들레가 훌쩍 날리듯 전파해 나가고 싶습니다. 참된 불자라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보살행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여 행복하고, 더욱더 많은 불자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공덕의 향

나의 헌신과 사랑이
다양한 사람들의 삶 위에
희망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저 또한 그때까지 고해의 바다에 머물러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게 하소서.

뜻 사람들의 선한 마음과 이익을 위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고
육바라밀을 통하여
보리행을 실천하게 하소서.

-능행스님의 글 중에서



김성덕 님 / 김창옥 님 / 박신숙 님 / 박영순 님
박현숙 님 / 서천하 님 / 유두원 님 / 이형주 님
임남환 님 / 조명희 님 / 현주스님
21세기약국(광주) / 꽃마을한방병원 / 자비실천모임(미국)
(주)CMG제약 / (주)신풍제약 / (주)아이월드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귀한 마음 내어 주셨습니다.
겨울 날, 눈꽃처럼 빛나는 자비심 고맙습니다.
(2019. 8월 ~ 11월까지)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

2019. 8월 ~ 11월 신규 동참자 목록입니다.(가나다순)

국경없는 민들레

2019년 8월				
강인숙	김정자	박태숙	장영준	정민영
고명복	김혜숙	여태익	장태호	정용한
김명숙	박동윤	이은경	전해민	정진근
김미옥	박옥돌	임동규	전해서	최옥순
김윤태	박옥현	장영민	정견스님	최정희
김은희	박철인			

2019년 9월				
김원우	박기만	안후창	원준스님	조윤현
김윤지	박성래	양계홍	이도	피정심
류성택	성정미			

2019년 10월				
강유정	김명희	이유정	조권형	진현정
고영남	김민규	이윤연	지관스님	최여준
광상수	김인석(영)	정숙자	진영삼	한평자
권은희	김주영	정우인	진재석	해성복자
김귀분(영)	이 쇠(영)			

2019년 11월				
박연숙	손준구	이정자	장일석	하춘순
박정란	송영숙	임소현	장재환	홍승희
서영숙	이규숙	장시완	정우섭	황도원
성자현	이윤주	장영희	지용기	

108병상

2019년 8월	2019년 9월	2019년 10월	2019년 11월
장아영	김순희	안금주 유방스님 차양숙	천필순

일시 후원

2019년 8월				
권보연	박해숙	정연옥	하성복	허동혁
김보현	손명일	차상민	허동완	홍인우
박선이				

2019년 9월				
김민정	김종진	김종하	자비실천모임	홍진스님
김정숙				

2019년 10월				
김미정	양영자	이정숙	최여준	

2019년 10월				
박휘수	이준영	지매자	홍란기	

의약품

2019년 8월				
곽노상	김지영	석상원	이영애	정한채
김보현	김태호	신정규	이유신	주지영
김상남	김혜숙	염재현	익명	최만식
김성희	박경자	오지수	전세준	최주옥
김숙희	박시연	이애리	전혜윤	황유준
김은영	박혜성	이연옥	정기호	황은실

2019년 9월				
강선미	남순정	서선재	이수자	조종식
곽이성	노영훈	성상철	이영실	지덕스님
김경우	대구구품회	성정미	이은찬	정은사
김명숙	문영조	세무법인정	이지영	최광진
김문희	민대홍	안	이학자	최선희
김미정	박기주	송경선	익명	최혜선
김민옥	박대중	송현주	장재룡	편수진
김숙자	박세정	삼대식(영)	장준호	한대문(영)
김정희	박연숙	안상현	장계자	한은복
김주희	박연주	안정환	장찬중	해인스님
김진선	박원석	엄희정	정현숙	홍재형
김현숙	박현정	유인철	조갑임	황은경
김혜정	배기순	이복순		

2019년 10월				
강선숙	김유진	박인양	오지현	이형주
강성옥	김윤주	박재덕	원즈스님	이혜진
강유권	김은수	박정순	유미니	이홍님
강준우	김정식	박종임	유미라	이효원
강하영	김정원	박준우	유해선	익명
곽미경	김창욱	배민성	유현웅	임남환
구순희	김태은	배민지	윤상란	임수영
권순선	김판덕(영)	배병원	윤설희	임준호
김수사	김필기	배병희	윤순은	장광대
김경로	김현우	보광륜	윤정범	장명자
김고미	김혜봉	사공영미	윤현중	장선정
김금옥	김희진	상호스님	이경희	장용열
김금자	김 훈	서 현	이금숙	장정숙
김다현	김희년	성민숙	이금순	적혜성
김도균	나덕형	성자현	이문자	전미숙
김동수	나민순	손여옥	이미화	전영택
김명과	노인자	손윤선	이미희	전은철
김민규	능행스님	송기준	이상백	정길모
김민설	도윤스님	송화숙	이세비	정남희
김병조	룩앤캐페	신원스님	이소령	정다연
김복래	류혜숙	신효완	이영숙	정미성
김상용	박광연	심형준	이영애	정용한
김선희	박규하	안서연	이의열	정원용
김선희	박노미	양순연	이익권	정재익
김순규	박선희	양태숙	이재경	정지영
김순래	박소휘	양호정	이재영	조갑동(영)
김순옥	박연옥	여여심	이정수	조경희
김순자	박윤희	연대훈	이정아	조권일(영)
김양희	박윤경	오근석	이진현	조대희(영)
김영희	박인숙	오상문	이태윤	조만동

후원
명단

조안님(영) 세명종합건설 최양태 허미성 해원스님 이민주 정원선 청주불자봉사단
조재익 진원스님 최양순 허우성 홍경자 이상경 정은진 최금자
조태희 최덕순 최정만 허준열 황병주 이은숙 정정화 최말전
조형희(영) 최비송 한마음회 형민스님(영) 황영옥 이혜경 진선행 최은희
주삼세 최순희 한유림 해공스님 장병순 차예주 최인선

2019년 11월

KB손해보험 박신숙 안서영
강종효 박은주 양정선
고영태(영) 박 현 연우회
권철원 배민성 울산선우회
김상화 배민지 원명스님
김영주 배병원 원영순
김재현 법장스님 유승녀
김희자 변형섭 유우선
대평산악개발 서미경 윤국자
류주희 성영이 윤춘자
민경진 안미령 이경진

의약품품

강원모 신풍제약 CMG제약
꽃마을한방병원 웰니스병원 아이월드
마연 이영수 한독
박현숙 이종남 한올바이오파마
베스트팜 임재범 허영철
신정환 장명자

후원
명단

기도에 동참해 주신 분들

2019. 8월 ~ 11월 신규 동참자 목록입니다.(가나다순)

간월보궁 천일기도 및 촛불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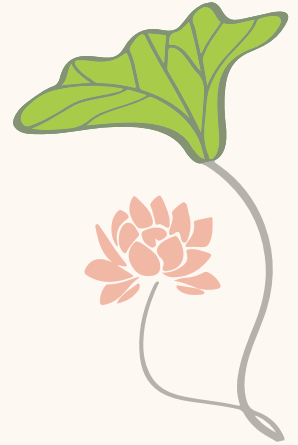
고순귀 김 속 문정일 장원철 조명희
곽미경 김영정 손상용 전우방 하성복
김수갑 문수행(영) 유현주

기도 공양금

경덕스님 김태은 손삼경 이연옥 주삼세
급수사 능행스님 신원스님 이재원 형민스님(영)
김영정 문쌍부 유준택 임영희 홍숙자
김종욱 박비송

백일기도 및 생일불공

김라희 김정숙 민 별 윤정수 정팔모
김인향 김진홍 박주락 임연자 최정우



법당건립불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

2019. 8월 ~ 11월 신규 동참자 목록입니다.(가나다순)

땅 1평

2019년 9월 2019년 10월 2019년 11월
곽도윤 관현진 오명근
하영순(영) 김외선(영) 주삼세

법당불사

2019년 8월 2019년 9월 2019년 10월 2019년 11월
박 열 김덕조 김민웅 김성덕
박영순 김민정 박시준 김순진
배정숙 도운스님 정민경 김양선
조옥순 류성택 정민수 서천하
정원웅 정팔모 유두원
조명희 정혜윤 유인아
케이씨메카이 이필순(영)
현주스님(영) 조태희
현주스님(영)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

2019. 8월 ~ 11월 신규 동참자 목록입니다.(가나다순)

2019년 8월

39기연지회 김태은 박현정 영운스님 임경숙
43기연지회 노기동 배석근 오지연 정계자
44기연지회 노혜숙 배정숙 우명선 정순옥
강민정 대원사 법인스님 윤국자 조연경
구연태 만법행 봉각스님 윤기장 지허스님
김금옥 명과스님 손선희 윤원주 최정순
김명경 박나원 송우스님 이명자 하성복
김봉삼 박연주 수환스님 이문자 흥원구
김영숙 박용일 신복출 이용순 화정스님
김재손 박은영 안철수 이정순 황효순
김정옥 박은주 여지모 이태영

2019년 9월

강상호 문영조 신한은행 이 도 한전서울산
남궁은숙 미소농장 울산선우회 이연옥 황유철
노기동 상복우체국

2019년 10월

급수사 김정옥 박찬홍 이남이 장명자
김귀남 노기동 신원스님 이말순 황유철
김인곤 박비송 울산선우회 이숙자

2019년 11월

고윤옥 노기동 석남사 울산선우회 허 산
김금옥 민재스님 오지연 이재륜 혜덕스님
남정애 박철인

나의 마음이 타인의 힘듦에 가 닿을 수 있도록 선하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 그 마음은 곧 곱절의 좋은 과보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러한 이치가 곧 연기적 인과법이라 합니다.

우리들은 마음으로, 언어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물질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선한 일을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9박 10일 여정으로 스리랑카 데니아야지역에 많은 약을 준비하였으며, 많은 의료진이 협력하여 4천여 명의 환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 후원자 가족들께서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모두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020년 또한 강건한 삶 속에서 빛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보시바라밀다를 실천해가다 보면 반야바라밀다를 성취하오리다.

-능행 합장

INFO

솔마더(Soul mother) 수련생 모집

솔마더는 치유적 능력 및 상담가 자질을 향상하고자 할 때, 기도 봉사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을 때, 호스피스 돌봄에 활용하고자 할 때, 개인적 수행과 영적 성장을 원할 때 등 필요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현장에서 영적돌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련하며, 체계적으로 영적 치유에너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1월
(월 1회 - 두번째 토~일, 회당 15시간, 총 8회)

접수마감 | 2020년 2월 24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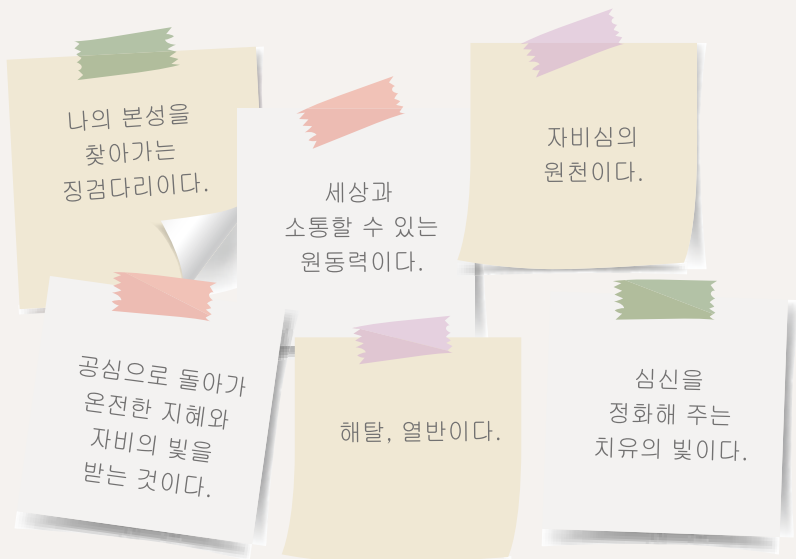
대상.정원 | 사부대중 (30명 선착순)

교육비 | 140만원 (수련복비 별도, 2안거 이후 교육비 50%감면)

교육문의 | 052)255-8522 / 010-8848-8522

교육 후기

나에게 솔마더(Soul mother)란?



불교 임상기도, 임종의식 집중수련 실시

지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불교 임상기도, 임종의식 집중수련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교육 수료생은 총 35명이며, 임상기도와 임종의식 과정의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타인을 대해야 보다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돌봄을 할 수 있는지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료특강) 2019불교 논리학 기초반 수료

3월부터 시작된 불교 논리학 기초반 무료강좌가 10월 23일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티벳 불교 계시 하람빠 학위를 받으신 계시 나왕은 덴스님, 계시 예시발덴스님, 계시 소남췌펠스님, 계시 덴젠상보스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통역은 지덕스님(북인도 파시종에서 20년간 티벳불교를 수행하시고, 현재 한국 금강승 수행센터 캄파시링 설립)께서 도움을 주셨으며, 현재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로 시청 가능합니다. 2020년 3월 불교 논리학 무료강좌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 소식

솔마더(Soul mother) 6회차 진행

지난 11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6번째 솔마더(Soul mother)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솔마더는 다양한 수련 방법을 통해 자신의 내적인 힘을 길러 청정한 치유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타인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자기 수행과 영적 돌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문사 3기 생사의 장 교육 실시

지난 11월 29일부터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스님 70명과 함께 운문사 3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이번 교육에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돌보고, 타인의 삶과 죽음의 여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들로 구성되었습니다. 5박 6일 동안 '멋진 성장'의 시간을 보낸 스님들께서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12월 4일 회향하였습니다.



무료특강) 불교유식사상과 마음수행

지난 10월 10일, 11월 14일 2회에 걸쳐 <불교 유식사상과 마음수행>이라는 주제로 무료시민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불교유식사상과 현대 심리학에 정통한 김경일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마음이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를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무료시민특강은 2020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 특강 <불교기초교리>

지난 8월 24일, 김경일 주임교수가 진행하는 여름방학 특강이 열렸습니다.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명상심리학과)과 생명교육전문가 과정의 기초가 되는 <불교기초교리>를 주제로 한 이번 강의 1부는 위덕대학교, 2부는 야외에서 진행되었으며, 후기 신입생도 참석하여 재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소식

가을학기 신입생 환영식

가을하늘이 유난히도 높고 푸르게 드리웠던 지난 10월 5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에서 가을학기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재학생들이 정성껏 마련한 맛난 음식을 차려 놓고 선후배가 함께 축하와 격려를 나누었고, 김경일 주임교수도 자리에 함께하여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2학기 야외수업 <경주 삼릉에서>

지난 11월 2일, 김경일 주임교수와 대학원생들이 경주 남산으로 야외수업을 다녀왔습니다. 가을 풍경 속에 상선암에서 바둑바위까지 아름다운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사전에 준비한 주제 <정신장애의 원인과 치료방안>에 대해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NFO

2020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추가모집합니다.

- 명상수행과 상담의 접목
- 자기성찰적 학습과 실천의 응용학문
- 불교와 현대심리학의 통합
-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실천학문

원서접수 | 2020. 1. 8.(수) ~ 1. 14.(화)

모집과정 | 석사과정(명상심리학 전공) / 생명교육전문가과정(2년)
생명교육전문가과정(2년)

입학문의 | 052)255-8521, 010-4656-0180

www.mahaedu.org



사띠수행 <수행, 마음으로의 여행>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에서 겨울방학 공개워크숍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띠는 붓다께서 설교하신 해탈 수행법의 하나로 마음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수행입니다.

일 정 | 2020. 1. 3.(금) ~ 1. 28.(토) 1박 2일

지도법사 | 붓다빨라 스님(김해사띠아라미선원장)

정 원 | 40명 (선착순)

참 가 비 | 20만원 (본교 신입, 재학생 50% 할인)

장 소 |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3층

참가문의 | 052)255-8521, 010-4656-0180



CPE센터 2019년도 가을학기 수료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CPE센터에서는 2019년도 가을학기에 2그룹 (토요반 - Supervisor 도우스님 6명, 일요반 - Supervisor 능인스님 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임상보디사트바CPE교육은 부처님의 법을 따라 자신을 성찰하여 지혜와 자비를 증장시키고 타인의 고통에 함께 머물며 전문적인 돌봄을 훈련하는 영적돌봄가의 과정입니다. 영적돌봄가인 임상보디사트바의 역할로 인하여 개인에게는 치유와 성장을, 관계에서는 상생을 이루는, 돌봄과 수행을 통합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2020년 봄학기에는 토요반- Supervisor 능인스님(1월~)/ 일요반- Supervisor 능행스님(2월) 그룹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문의 010-7109-7600 도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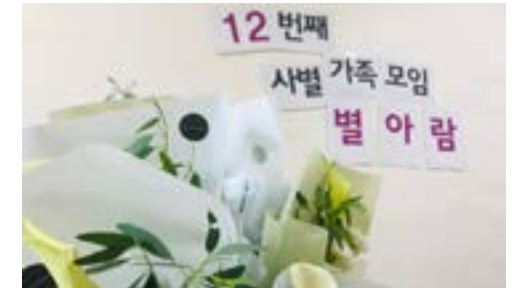
추석맞이 '한가위 대잔치' 개최

명절을 맞이하여 '한가위 대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음악요법을 해주시고 계신 국악인 고선화 선생님을 비롯한 제자 분들이 함께 민요와 가야금 연주로 흥겨운 시간을 꾸며주셨습니다. 또한 달달한 다과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호스피스팀과 가족이 함께 명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별가족 모임 '별아람' 개최

지난 12월 14일, 호스피스병동 사별가족모임 '별아람'을 개최하였습니다. 사별가족모임 '별아람'은 연 4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개최하며 만남을 통해 떠나보낸 가족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마음을 다독이며 건강하게 사별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하는 모임입니다. 다음 사별가족모임은 2020년 3월에 진행됩니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CPE센터·법인 소식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소식

정토마을 2019년 김장 행사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정토마을 김장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약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배추 2200포기의 김치를 담아 저장고에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정성과 사랑이라는 양념이 추가된 김치이니 꼭 드시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김장에 함께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경없는 민들레 스리랑카 의료봉사

쓰나미로 산사태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스리랑카 마타라 테니야야에 42명의 의료팀과 자원봉사자가 다녀왔습니다. 4천 명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했고, 귀가 들리지 않는 50명에게 보청기를 전달하였습니다. 마하위하라사원에는 화장실을 지어 스님들과 불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의약품 후원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호스피스팀 소진예방 프로그램 진행

호스피스 다(多)학제적 팀은 환자 및 보호자들과 함께 상실감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소진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 소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함께 영화를 감상하는 영화테라피와 다도를 배우고 차를 즐기며 나를 위하는 다도요법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팀 기관견학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팀이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병동에 내방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호스피스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며 시설을 둘러보았고,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호스피스기관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며 전반적인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 봉사자 소식

그대가 머무는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고
그대의 미소가 내 입가에서 함께 피어날 때
그대와 머무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 국제인지문화협회(박나해 회장)

매주 화요일 오후 2시~3시 인지 게임, 보드게임, 손유희, 레크리에이션 환우분들에게 정서적, 인지, 신체기능 유지 향상 프로그램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 자비공덕회(김계수 회장)

매월 4주 차 1회 불기 닦기, 공양간 식자재 다듬기, 환경정비 등 항상 많은 회원님이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길 희망하시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해요.

자원봉사문의 052)255-8408 담당 사회복지사 김은구

청주 염불 수행



아미타 부처님 : 무량수(無量壽) 무량광(無量光) 아미타불 또는 무량수불

아미타불은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오랫동안 수행한 결과
그 원을 성취하여
10겁 전에 부처님이 되어
현재 극락세계에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에 갈 여행지... 극락세계!

무량한 복덕이 아니고서는 부처님을 만날 수 없듯이 그곳에 확실한 인과 연을 만들어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 안에서 기쁨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낼 힘을 기르는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으로 이 몸을 벗어나는 그대에 자연스러운 벗어남을 통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위 없는 깨달음과 수행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아미타불 염불선 수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무아미타불(00)

수행일정 및 장소

일 시 : 매월 셋째 주(금) 오후 7시 ~ (일)오후 1시까지 (2박3일)

동참금 : 50,000원

동참계좌 : 농협 351-0352-4390-73 정토마을

동참문의 : 043)298-2258, 010-7305-4935(무량지)

장 소 : 청주 정토마을_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초정로 856-19

전날 입소 가능하며 숙식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사배정으로 인하여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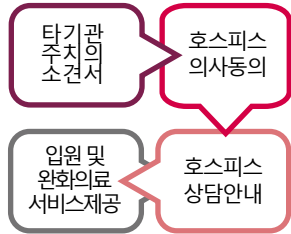
● 완화의료대상자

- 기대여명이 6개월 전후로 예견된 말기암 환자
- 의학적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 암성통증 및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 주치의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을 추천 받은 환자

● 완화의료 서비스

- 호스피스전문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다학제적 완화의료 팀의 전인적인 돌봄 서비스
- 통증완화 및 증상조절
- 다양한 예술통합 요법치료(미술/원예/마사지/다도요법 등)
- 전문적인 영적 돌봄 및 상담, 임종을 위한 불교전문 의식
- 이벤트 및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제공
- 퇴원시 타기관 안내 및 보건소 연결, 재가 암환자 서비스 안내

● 입원절차



왜 하필 나일까.

말기암 진단을 받고 힘든 상황이라면 이곳을 찾아주세요.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삶의 가장자리에 서 계시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수십 년 노력해 오신 능행스님께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을 만들어 지치고 힘들어 땅으로 꺼질 것만 같은 당신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합니다.
저희들이 파릇한 생명의 빛이 되어 당신의 힘듦을 함께 나누고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삶의 질 함께 가꾸어가며 가슴이 우는 눈물 닦아 드리는 능행스님과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과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의료진이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 있습니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 입원상담 052.255.8457



-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최우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등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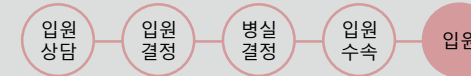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jajae-hospital.com

입원문의 052)255-8400

입원절차



유의사항

입원신청시 건강보험증과 현재 치료받고 있거나 기존에 치료 받았던 병원의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 CT 및 MRI 등 의무기록사본, CD사본을 챙겨오셔야 합니다.

전문의료 서비스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양·한방 협진진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입원시 준비 서류 및 물품

의사소견서

의료보호 1,2종은 의료급여 의뢰서(회송서) 지참
(급여환자의 경우 반드시 필요)

처방전

복용하시던 약

X-RAY, CT, MRI 사본 또는 결과지

병실생활에 필요한 물품

(세면도구, 양치대야, 각티슈, 물티슈, 수건, 로션, 실내화 등)

병동안내

- 1F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집중치료실
- 2F 요양병동, 마하치유방송실, 영적돌봄연구실
- 3F 요양병동, 승가병실, 물리치료실, 영양실
- B1F 영상검사실, 한방치료실, 약제실, 바이룸, 자원봉사자실

부처님 오신 날
공덕무량등
접수안내

하늘가에 등불 밝혀 두오니 당신에게 붓다의 축복과 평화로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연등공양금>

- 한 생명 살림 등 | 5만원
- 법당무량공덕(1년등) | 10만원
- 극락왕생 영가 등 | 10만원
- 사업성취 대 등 | 30만원
- 대 광 명 대 등 | 100만원

법화 참회 3일 기도 철야정진은 나쁜 악업의 뿌리를 제거하며, 선업공덕이 무량한 기도입니다. 철야정진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불행을 제거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 성공과 안락함을 성취하게 하는 특별한 기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입 재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9시
 기도일정 | 매월 첫번째 금요일(오전 9시 입재),
 토요일 철야정진 ~ 일요일 (오전 7시 회향)
 집 전 | 능행스님과 정토마을 대중스님
 동 참 금 | 월 10만원 (36개월)
 계좌안내 | 농협 351-1069-8274-83 (예금주 : 정토마을)
 접수문의 | 052)255-8588, 010-2926-8500

제 5차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
동참안내

2020 경자년
정토마을
인등
접수안내

한 해 동안 정토마을 부처님 전에 모셔질 인등 접수 받습니다. 인등이란 부처님께로 한걸음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등불로서, 인(려)은 끌어들이 인(려)으로 복을 끌어들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 소 | 정토마을 대법당
 동 참 금 | 1인 월 5,000원 (연 6만원)
 계좌안내 | 351-0661-9836-63 (농협 : 정토마을)
 접수문의 | 052)255-8588, 010-2926-8500


정토마을과 동행의 길

정토마을은

붓다의 가르침을 토대로 공존을 통해, 함께하는 공생의 삶에 질적 향상을 꿈꾸며 좀 더 아름다운 생과 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연을 통하여 더욱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동참하겠습니다.

정토마을에 동참하신 불사와 후원금은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01 불사후원	구분	후원(동참)금	계좌안내
	진신사리 보궁 및 삼천불전 건립 불사	10만원 이상	농협 351-0487-2570-73 (예금주:정토마을)
	삼천불 조성 불사	주불(개인) 5백만원 이상 삼존불(가족) 2천만원 원불(개인) 108만원 <small>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여래불</small>	
	땅 1평 공양 불사	30만원	

03 국경없는 민들레	구분	후원(동참)금	계좌안내
	의료봉사 의약품후원	자유롭게	농협 355-0057-1787-53 (예금주:(재)정토사관자재회)
	민들레 후원	월 1만원 이상	농협 401131-51-080245 (예금주:(재)정토사관자재회)

04 108병상후원	108만원 (36회/20회/20회 분납가능)	농협 815039-55-003185 (예금주:(재)정토사관자재회)
---------------	--------------------------	---

02 법화참회기도 (간월보궁)	매월 10만원	농협 351-1069-8274-83 (예금주:정토마을)
------------------------	---------	-----------------------------------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자원개발실
052)255.8588 / 010.2926.8500

#능행스님
능행스님과
SNS친구해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정토마을 능행스님' 검색
 플러스친구추가를 통해
 능행스님의 좋은 글귀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세요.



페이스북

'능행스님' 검색,
 팔로우 신청을 통해
 스님의 일상과
 만나보세요.



네이버 밴드

'능행스님' 검색
 능행스님의 소풍에
 초대합니다.



다음 카페

'정토마을' 검색
 정토마을의 지난 소식부터
 최근 소식까지
 모두 만나보세요.

50th

생사의장

since 1993

불교호스피스교육

생사의 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사를

인생이라는 한 선에 놓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게 되는

영성프로그램 입니다.



교육 기간 : 2020년 2월 15일(토) - 2월 20일(목) 5박 6일

교육 대상 : 사부대중

교육 정원 : 40명(선착순)

교육비 : 80만원(학인스님 20%감면)

농협 351-0587-2656-13 마하보디교육원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사진(3x4) 1매

접수방법 :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온라인접수

접수문의 : T 052)255-8522, 8524 M 010-8848-8522

E-mail mahabodhi@daum.net www.mahaedu.org 카카오톡 마하보디교육원

449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마하보디교육원



제 10 차 경자년 법화경 독송 21일 장좌기도 봉행안내

병원불사를 위해 매년 정월 초 21일 장좌기도를 시작 한 지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장좌기도는 21일 동안 염불소리 끊이지 않고 이십여 분의 승가공동체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법화경 28품을 오롯이 독송하며 용맹정진하는 수행입니다.

정토마을은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삶을 위안하며,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여정의 아름다운 공간으로, 떠나는 이와 남은 이 그리고 돌보는 이들 모두에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살행을 실현할 수 있는 수행도량으로 그 면모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니 문득 뒤를 돌아봅니다.

올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토마을을 찾았고 함께 기도했던가.

이른 새벽 깨어나 기도합니다.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그리고 함께 나눈 이들이 행복으로 가슴을 따뜻하게 적실 수 있기를 발원하며 열 번째 장좌기도에 들어갑니다.

입 재 | **2020년 1월 19일(일)**

회 향 | 2020년 2월 8일(토)

*음력 정월대보름 감포 앞바다에서 방생을 하며 회향합니다.

동 참 비 | **기도비 10만원 / 영가1위 1만원 / 설판재자 210만원**

*설판공덕주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는 큰 불사나 법회에 경제적으로 중추적인 보시를 함으로써, 그 공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선업의 공덕을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접수 | **052-255-8588** / 010-2926-8500

계좌안내 | 농협 **351-0487-2583-23** (예금주 : 정토마을)